

시의회, 코로나19 대응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코로나19 피해 각계각층 지원예산 반영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는 지난 2일 제224회 임시회를 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처리하기 위해 당초 계획에 없던 임시회 개최를 긴급 결정하고 1일 회기로 진행됐다.

시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증액규모는 149억 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최종 의결했다.

예산안에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소상공인 및 실직자 긴급지원, 시내버스 및 택시 재정지

원 등이 포함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계각층에 대한 지원 예산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박금순 의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시민 개개인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평범한 삶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생활의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시의회도 코로

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임시회는 2020년도 회기 운영 계획에 따라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